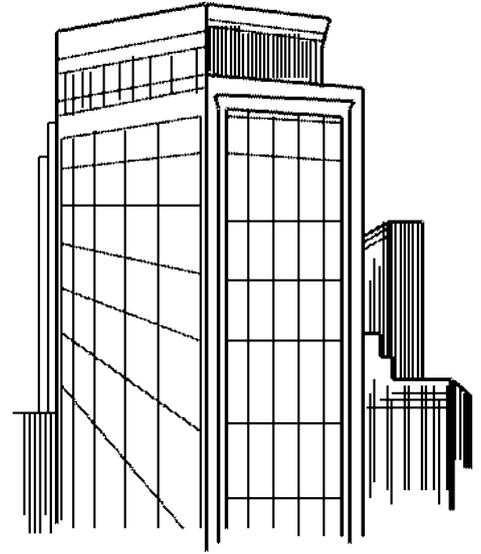


경영정보 브리핑

2022. 1. 3. ~ 2022. 1. 28.



정책이슈

-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 산업부·발전공기업 긴장 속 막판 점검 P. 1
- 올 도로·철도 예산 17조 육박, 건설신기술 시장 훈풍 P. 2
- 올해 에너지 수요 코로나19 부진 뚫고 반등 P. 3

조합·유관기관 등 동향

- 건설공제조합 새 이사장에 박영빈씨, 첫 공모로 선임 P. 5
- 전문건설공제조합, 현장중심 영업활동 강화, 더 많은 조합원을 이롭게 P. 5
- 전력거래소, 재생에너지 이용률 정보 제공 서비스 시작 P. 6
- 한전, 현장밀착형 안전경영과 탄소중립 속도내는 두 번째 조직개편 P. 6

금융

- 월간 경제지표 P. 10
- 1월 금융통화위원회 : 여전히 매파적 색채 P. 11
- 1월 美 FOMC P. 11
- 中 성장률 둔화 전망에 따른 경기부양책 강화 P. 12

경제·정책 이슈

▣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 산업부·발전공기업 긴장 속 막판 점검

1.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정부 및 공기업 최종점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물론 관련 공기업들이 긴장 속 안전 대책 최종 점검에 만전을 기하는 중.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이 시행되면 사고 발생 책임 주체를 누구로 볼지에 따라 공기업 사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최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에너지시설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법 시행 전 에너지시설 유관기관별 작업장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대책 및 긴급 대응체계 등을 점검 및 공유. 산업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작업장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현장 이행상황 불시점검과 현장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는 계획.
- 주요 공기업의 중대재해법 대응책은 다음과 같음. (전기신문, 1. 24.(월))

| 기관명 | 내용 |
|---------|---|
| 한국전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 ▶ 감전·끼임·추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3대 주요 재해에 대해 미리 정한 안전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하는 등의 내용이 대책의 핵심. |
| 한국수력원자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9월부터 전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 중. ▶ 안전처장 직속으로 중대재해대응준비팀을 신설하고 법 시행과 관련한 종합 대응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수행 중. |
| 서부발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들과 분기별로 안전협의회를 진행중. 협력사 대표와 근로자 등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CEO 협력사 안전컨설팅'을 시행 중. |
| 남부발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율 0%를 핵심성과 지표로 설정. |
| 중부발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경영처 아래에 중대재해예방부를 마련. |
| 남동발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술본부 내 직제 상향 조정 ▶ 각 발전소 본부장 직속으로 안전감독관 신설 |
| 동서발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9월 조직개편에서 건설사업관리실을 신설 ▶ 대규모 건설사업 공사현장의 법령준수 및 안전관리 총괄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강화 |

▣ 올 도로·철도 예산 17조 육박, 건설신기술 시장 훈풍

1. 2022년 건설신기술 시장 활기 띌 것으로 전망

- 2022년 건설신기술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힘입어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됨.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SOC 투자 규모는 22조 7,913억 원인 역대 최대로, 앞서 가장 많았던 지난해(21조 6,000억 원)보다 약 5.5%(1조 2,000억 원) 증액됨.
- 분야별로는 SOC 기금을 제외한 도로·철도·항공·공항·물류·R&D 등 교통 및 물류에 19조 3,817억원(8.1%↑), 수자원·지역 및 도시·산업단지 등 국토 및 지역개발에 3조 3,498억 원(6.3%↑)이 편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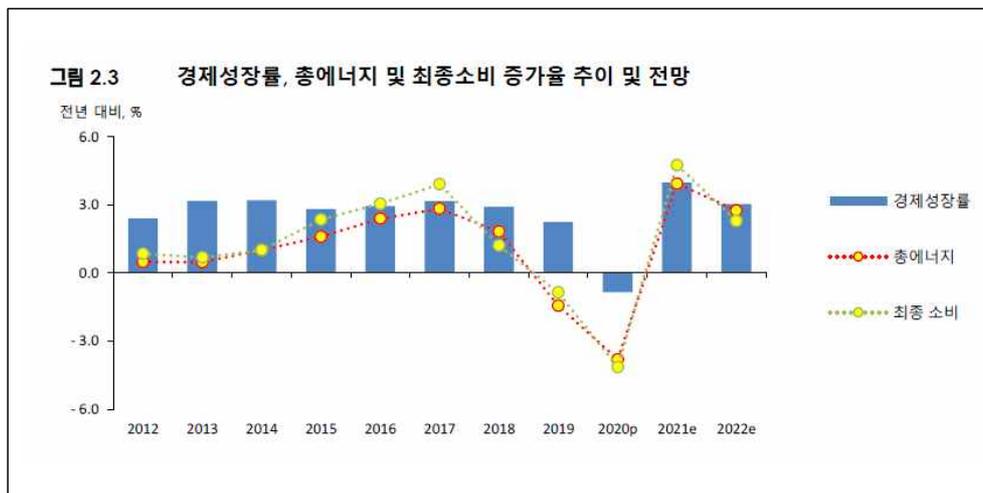
| 구 분 | 2022년 예산 | 2021년 예산 | 증 감 |
|-----------|--------------|--------------|------|
| 교통 및 물류 | 19조 3,817억 원 | 17조 9,294억 원 | 8.1% |
| 국토 및 지역개발 | 3조 3,498억 원 | 3조 1,513억 원 | 6.3% |

- 이에 따라 올해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 건설신기술의 70% 가량은 공공사업에서 활용됨. 지난해 활용실적은 4,5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음. 건설신기술 활용이 잦은 도로·철도 분야의 예산이 각각 8조 3,322억 원과 8조 5,684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1%, 5.8% 늘어난 것도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음. (e대한경제, 1. 3.(월))

▣ 올해 에너지 수요 코로나19 부진 뚫고 반등

1. 2022년 에너지 수요 반등 전망

- 지난 2년간 하락세를 보였던 에너지 수요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올해에는 코로나19 영향이 축소되면서 이에 따른 공공업 생산활동 증가, 서비스업 생산활동 회복 등에 힘입어 에너지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
-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은 최근 발간한 '에너지 수급 브리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와 올해 에너지 수요 전망을 발표.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총 에너지 소비는 각각 3.9%, 2.7% 증가. 총 에너지 소비는 3억 1,000만TOE(석유환산톤), 최종 소비는 2억 4,000만TOE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에너지수요전망 2021년 하반기, 에너지경제연구원)

2. 경기회복과 함께 에너지 소비 증가 예상

- 에경연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생산 활동이 회복되면서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통계작성 이후 최초로 2년 연속으로 총 에너지 수요가 감소한 바 있음. 이 같은 감소세로 인한 기저효과에 더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가 다시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에너지 수요도 함께 증가할 전망. 에너지원별로 보면 지난해에는 석유와 가스가 올해에는 석유, 원자력, 신재생이 에너지 수요 증가를 주도할 전망.

- 석유 수요는 2021년에 산업 부문의 석유화학 원료용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2022년에는 수송 부문에서 도로와 항공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석탄은 최종소비 부문에서 제철용을 중심으로 양호하게 증가하지만 발전용 수요가 감소 또는 정체되며 증가율이 1~2%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임. 더불어 전기 수요는 2018년 526.1TWh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년 연속 감소했지만, 경제활동이 빠르게 회복되며 2021년에 전 고점을 넘어서고 2022년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540TWh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신문, 1. 17.(월))

조합 · 유관기관 등 동향

■ 건설공제조합 새 이사장에 박영빈씨, 첫 공모로 선임

- 건설공제조합은 11일 조합 총회를 열고 제19대 이사장에 금융전문가인 박영빈 전 경남은행장을 선임. 건설공제조합이 정식 공모절차를 거쳐 이사장을 선임한 것은 1963년 창립 이래 이번이 처음으로, 그간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사장을 맡아온 '낙하산' 인사 관행이 깨진 것이어서 주목됨.
- 박 신임 이사장은 1954년 부산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장기신용은행, 한미은행을 거쳐 우리투자증권 부사장(COO), 우리금융지주 전무, 경남은행 은행장, 동성그룹 부회장 등을 두루 역임한 금융전문가로 기업 경영과 금융 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책임자라고 조합은 설명.
- 박 이사장은 이날 총회에서 "향후 조합과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며 "건설공제조합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 (연합뉴스, 1. 11.(화))

■ 전문건설공제조합, 현장중심 영업활동 강화, 더 많은 조합원을 이롭게

-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 건설보증시장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조합원을 찾아가는 '현장중심 영업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 조합은 조직개편을 통해 오는 2월 1일부터 영업 관련 부서의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비대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조직의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전략.
- 조합은 본사 및 지점에 영업 전담역을 배치해 우량 조합원에 대한 맞춤형 영업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미이용 조합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원인 파악 및 제도 개선에 나서 조합 이용률을 높여나간다는 계획. (대한전문건설신문, 1. 14.(금))

■ 전력거래소, 재생에너지 이용률 정보 제공 서비스 시작

-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이용률 정보 등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 그동안 자연력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 특성상 발전량은 지역여건(일사량, 바람 등)에 영향을 받아 지역별로 수익성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없어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나 사업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웠음.
- 이에 전력거래소는 (주)해썬의 일사량 등 기상청의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발전량 예측 정보와 전력거래소가 보유한 전력시장 참여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시간대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이용률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함.
- '신재생 이용률 정보 제공' 서비스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데이터 활용이 용이하도록 대한민국 지도를 활용한 GUI로 구성되며 시·군·구 및 월·년 단위로 세분화 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해당 서비스는 12월 연말까지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kpx.or.kr)을 통해 시범운영을 실시, 1월 중 본격 운영이 시작될 예정. (전기신문, 1. 3.(월))

■ 한전, 현장밀착형 안전경영과 탄소중립 속도내는 두 번째 조직개편

- 한국전력이 새해를 맞아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와 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2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 앞서 정승일 사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2022년을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새해 구상의 첫걸음으로 풀이됨.
- 정승일 사장 취임 후 두 번째로 단행된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현장중심 안전 관리 체계 재정립 ▲에너지효율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연대와 협력의 에너지생태계 기반 구축 등. 조직개편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구 분 | 내 용 |
|-----------------------------|--|
| <p>현장중심 안전관리 체계 재정립</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중심 안전관리 조직 최적화, 안전정책 거버넌스 강화 □ 안전보건처를 사업총괄 부사장 직속으로 변경해 현장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재정립. |
| <p>에너지효율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효율향상 전략기능 및 규제분석·개선 총괄기능 확대 |
| <p>연대와 협력의 에너지생태계 기반 구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조직인 '에너지생태계 조성실'을 설립함으로써 차별화된 혁신기업 육성.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혁신의 메카로 재탄생 시키는 역할 담당. |

(전기신문, 1. 3.(월))

금 용

▣ 월간 경제지표

기간 : 2022. 1. 3. ~ 2022. 1. 27.

| 구 분 | 변 동 폭 | 1. 3 기준가 | 1. 27 기준가 |
|-----------------|----------|----------|-----------|
| KOSPI | ▼ 374.28 | 2988.77 | 2614.49 |
| KOSDAQ | ▼ 188.60 | 1037.83 | 849.23 |
| S&P500 | ▼ 470.05 | 4796.56 | 4326.51 |
| CD(91일, %) | ▲ 0.20 | 1.30 | 1.50 |
| 국고채(3년,%) | ▲ 0.352 | 1.855 | 2.217 |
| 회사채(3년, AA-, %) | ▲ 0.321 | 2.460 | 2.781 |
| 국고채(10년, %) | ▲ 0.287 | 2.325 | 2.612 |
| 미국고채(10년, %) | ▲ 0.171 | 1.637 | 1.808 |

□ 증시

- [국내] 미국 테이퍼링 및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수급불안정으로 인해 코로나 이후 가장 큰 조정폭을 나타냄
- [미국] FOMC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나스닥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어 큰폭의 하락을 보임

□ 금리

- [국내] 인플레이션 우려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크게 상승, 또한 추경 등 재정 정책이 금리 상승에 압박을 가하고 있음
- [미국] 22년 3월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연 4차례 이상의 인상이 예상되면서 미국채 금리가 급등함.

■ 1월 금융통화위원회 : 여전히 매파적 색채

-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여 팬데믹 이전 수준인 1.25%로 복귀하였음. 인상 결정 배경에는 ① 민간소비의 기초적 회복 속 3%대 성장 경로 전망 유지, ② 높아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③ 누적된 금융불균형 완화 등이 작용하였음.
- 이주열 총재는 1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 상황에 비춰봤을 때 통화정책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임을 강조하였음. 또한, 기준금리가 1.5% 수준까지 인상되어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고 발언하여 매파적인 색채가 뚜렷하게 나타났음.
-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1.75% 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다만,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통화완화 정도의 추가조정 시기를 판단한다고 밝혀 다음 금리 인상시기는 7월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추가 기준금리 인상과 추경 편성 소식에 채권금리는 상승세를 나타내었으나, 당분간 추가적인 채권금리 인상 이벤트는 부재할 것으로 예상됨. 단기 금리의 변동성은 높게 유지될 전망이나, 장기 금리의 경우 상승폭은 제한되어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1. 14(금))

■ 1월 美 FOMC

- 1월 FOMC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매파적이었음. 첫 번째로 양적긴축(QT)에 대해서는 'later this year'라는 표현을 고수하며 기준금리 인상 후 시행할 예정임을 덧붙였음. 그러면서 구체적인 결정은 하지 않았고 다음 회의(3월)에서 더 논의 할 것임을 밝힘. 대신 "예측 가능하도록"하겠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QT는 연내 가동으로 갈피를 잡는 듯 함.
- 둘째로 금리 인상에 관한 가이드는, "조건이 무르익는다면 3월에 올릴 수 있다." 라고 언급하였으며, 시장에서는 이를 3월 인상으로 100%로 반영 함. 또한 인플레이션 정도가 높고, 노동시장 역시 강력하다고 하며 금리 인상의 당위성을 내비침. 결론적으로 3월 인상 시작이 명확해 졌으며, 상반기 중 탄력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하반기 중 금리인상과 QT가 동반될 것이라 예상됨. (SK증권 1. 27(목))

■ 中 성장률 둔화 전망에 따른 경기부양책 강화

- 중국의 작년 4분기 성장률이 4%에 그쳐 최악의 코로나 사태가 진행 중이던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성장률 둔화 원인으로는 부동산 침체, 정부의 빅테크에 대한 강한 규제, 강력한 코로나 확산 방지조치, 공급망 병목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 중국 정부는 5%대 성장률 사수를 위해 세제인하, 지방특별채 발행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을 시행할 전망이며, 인민은행 역시 경기회복 촉진을 위해 7,000억 위안 규모의 1년물 중기대출제도(MLF) 금리를 10bp 인하하였고, 추가 기준율 인하가능성 언급 등 통화완화 정책을 시행할 전망이다.
- 그러나 선진국들의 긴축기조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인하여 중국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확장적 정책의 효과는 하반기에 점차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됨. (국제금융센터 1.17(월) 1.18(화), 조선일보 1.17(월))